面二段의 角形받침으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으며 落水面이 平薄하고 轉角의 反轉도 輕快하다。추녀에는 落水홈이 陰刻되었고 轉角 四隅에 風磬이 附着되었던 小圓孔이 二孔씩이 보이는데 이 石塔 全體의 均衡잡힘과 輕快한 屋蓋 및 基壇部와 初層塔身의 豊麗한 諸像 彫飾에 各層轉角에서 댕그렁대는 風磬소리 마저 울렸을 當時 新羅代에는 壯觀이었으리라……現高 五m의 이 石塔은 北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基壇部의 構造가 若干 錯亂되었는데 앞으로 補修作業이 必要할 것이라 생각된다。實測値는 (cm) 基壇部가 下基面高 三一·五 下基甲石長 二四四 下基面幅 二三〇·五 下基甲石厚 一〇·九 上基面高 九一·五 上基面 幅 一七八 上基甲石長 一九七 上基甲石厚 一四·五이며 塔身部는

	身高	身幅	隅柱幅	屋蓋長
第一層	七九·五	九〇	一二·五	一五四
第二層	三〇·五	八〇·五	一二	一三六·五
第三層	二六·五	六六·五	一〇·五	一一六·五

이다。

二、石造浮屠

原位置로 推定되는 바 이 丘陵에서 東쪽으로 前述한 三層石塔이 보이며 眼下 멀리 東海가 굽어 보이는 佳景無比한 眺望이 마치 感恩寺址를 連想케 한다。이 位置에서 東南쪽은 斷崖을 이루고 西北쪽 넓은 耕作地는 옛 建物址로서 現在도 高 三—四m의 長大한 石築址가 뚜렷하며 瓦片이 散亂한데 前記한「陳田」銘 瓦片①도 이곳 耕作地에서 拾得한 것이다。

浮屠는 基壇部와 塔身部로 이루어졌는데 石塔의 通式인 方形二層基壇 위에 仰蓮괴임 一石을 놓고 八角身石과 屋蓋를 具備한 異例的인 樣式으로서 慶州石窟庵三層石塔과 通하는 新羅時代의 特殊形式이라 하겠다。

地臺石 上面에는 四分圓의 몰딩과 角形받침을 刻出하여 基壇을 받고 있는데 下基面石은 四枚로 構成되고 兩隅柱와 中央 一擎柱가 있으며 甲石도 四枚로서 上面에 몰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았다。上基面石 亦是 四枚로 隅柱나 擎柱가 下基와 같으며 甲石은 二枚로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八角으로 四分圓의 몰딩과 角形받침이 있어 蓮華괴임石 一枚를 놓았다。이 蓮華臺石의 下面은 角이 뚜렷치 않으나 上面은 八角의 角形과 몰딩으로 身石을 받고 있으며 十六瓣의 仰蓮內는 花瓣을 彫飾하였다。八角身石에는 一面에 篆額을 마련하였을 뿐 銘文이나 彫飾 門扉 隅柱 等의 表現이 全無하다。八角屋蓋石 추녀에는 落水홈이 陰刻되었으며 落水面도 平薄하고 轉角의 反轉도 輕快하다 할 것이다。相輪部材는 收拾이 않되었는데 이外에 現在 各部材는 完存하여 完全 復原이 可能할 것으로 믿는다。實測値(cm)……下基面石長 一八七·四 下基甲石長 一九三·四 下基面石高 一九·八 下基甲石 厚一〇·六 上基面石長 一二四 上基面石 高七〇 上基甲石長 一四八·六 上基甲石厚 一二·六 蓮華괴임石 一邊長 四四·八 蓮華괴임石 一邊厚 一二·八 身石一邊長 三一·四 屋蓋一邊長 五三·八·身石 高 六七·九 轉角 八·八는 이다。

以上 兩塔에 對한 記錄은 若干 있으나② 그것으로는 不足하며 形態를 識別할 수 없다。끝으로 이 遺物은……三層石塔은 國寶로 浮屠는 寶物로 指定되었음을 附言한다。

註

① 再調時 收拾되어 同人申榮勳氏가 所藏하고 있다。

② 杉山信三著「朝鮮の石塔」二〇八頁과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五四二頁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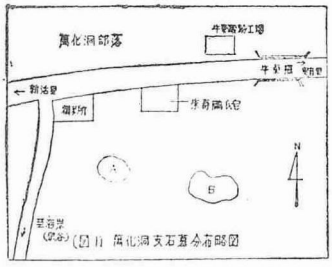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三)

崔 夢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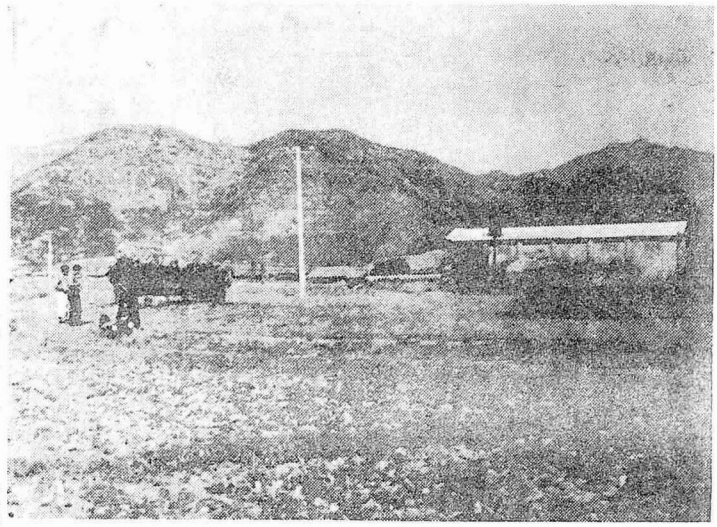
(c) 萬化洞支石墓

圖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이 發見된 大規模의 南方式 支石墓 二基는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萬化部落에 所在하고 있는 牛東精米所에서 南方으로 約 一五m 떨어진 곳 金在永氏 所有인 보리밭에 存在하고 있다。

筆者는 西쪽에 있는 것을 A、反對쪽에 있는 것을 B라고 붙여 說明하고자 한다。



(圖1) 萬化洞支石墓令布略圖



ㄱ、支石墓A
(사진參照)

全體外形으로 보면 東西쪽 長軸이 南北의 것보다 훨씬 긴 不定形의 蓋石을 가지고 있으며 一·二m의 비교적 큰 四개의 支石으로 받친 南方式 支石墓이다.

또한 重量의 탓인지 東쪽으로 若干 기울어져 있다.

東西最大 長軸은 五·九m 南北 三m 幅 一·七m이다.

ㄴ、支石墓B

이것은 南쪽으로 치우쳐 받친 三個의 支石만 보이며 東北方으로 內部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前者 A와 같이 南北最大長軸 四·一m 東西 三·二四m 幅 一·五m의 비교적 巨形의 南方式 支石墓이다.

(d) 聊川里支石墓

保安面 聊川里에 所在하고 있는 聊川國民學校의 西北方 標高 約 二〇m쯤되는 黃土흙의 낮은 둔덕에 南方式 支石墓 二基가 存在하고 있으며 前記 萬化洞支石墓가 平地에 있는 것과는 差異가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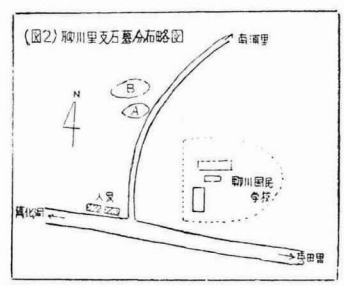
筆者가 番號를 붙인 支石墓 A·B를 各各 說明하면

ㄱ、支石墓A

東쪽으로 높이 들려져 있으며 支石은 北쪽에 둘, 東쪽에 하나, 南쪽에 둘, 合하여 다섯이며 南北最大長軸 一·八m 東西二·八二m 幅 一·八m의 비교적 小形의 南方式 支石墓이다.

ㄴ、支石墓B

東西最大長軸 三·九四m 南北 二·五九m 幅 〇·四二m이며 約 〇·七m의 幅을 가진 四個의 支石으로 形成된 비교적 큰 南方式 支石墓라고 생각되며 前者와 같이 外形은 西쪽이 얕고 東쪽으로 쳐들려져 있다.



(圖2) 聊川里支石墓令布略圖

八角構成의 實際

金 東 賢

우리 周圍에 八角形의 遺物은 얼마든지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機會를 恒常 가지고 있지만 그 形成方法에 對해서는 소홀히 생각하는 境遇가 많다. 이 點에 對하여 疑問을 품고 있던 차에 動的均齊法理論中 對角線 利用 法則을 여러가지로 풀이하다 對角線을 使用하여 八角을 形成할 수 있는 實際方法을 알게 되었다. 이 方法을 우리 先祖들도 使用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에 그 作圖法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動的均齊法은 Jay Hambidge氏에 依해 一九二〇年 「Dynamic Symmetry in the Greek Vase」라는 論文에서 發表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理論中 對角線 使用 法則을 利用한 여러가지 事實이 있으나 모두 省略하고 우리 周圍에 있는 八角만을 對象으로 그 使用法을 생각해 보겠다.